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연령집단별 비교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정 세 미*
(이화여자대학교)

이 미 우
(이화여자대학교)

임 정 속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별로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집단은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 연령통합인식의 수준과 연령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ANOVA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세 연령집단 모두 지역사회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주의로 나타났다. 개인의 사회활동참여수준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연령통합적인 사회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연령이 접근 가능한 지역환경구성, 긍정적 가족가치관과 관계 형성,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연령통합 영향요인, 지역사회접근성, 가족주의, 사회참여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5071).

* 교신저자: 정세미, 이화여자대학교(vlsemi@hanmail.net)

■ 투고일: 2016.1.31 ■ 수정일: 2016.3.14 ■ 게재확정일: 2016.3.18

I. 서론

201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이고,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전망이다(통계청, 2015).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비단 노인과 연관된 문제를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와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양정선, 2007, p.2),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비용도 증가시킨다(Zeleney, 2006, p.2). 또한 고령화의 현상은 저출산과 함께 생산성의 저하와 경기불황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어 젊은 세대에게는 노인의 부양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등 다른 세대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문제는 “나이 전쟁(aging war)”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노인이 아닌 세대와 연관된 문제로 연결되며, 세대 간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김호식, 정미녀, 손경숙, 2005, p.75). 이러한 방안 중에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 나이장벽을 없애고 노인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령 분절적 대안에서 연령통합과 같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정경희, 2004, p.22; 김경호, 2005, p.578; 정순돌, 기지혜, 이은진, 최혜지, 2015a, p.380; 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돌, 2015a, p.109; Foner, 2000, p.272).

기존의 연령차별과 연령분절적 시각에 따르면, 생애과정별로 청소년은 교육, 중년층은 일, 노년층은 여가와 같이 사회적 연령범주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게 된다(김경호, 2005, p.559). 반대로 연령통합적인 사회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의 진입장벽을 막지 않으며, 사회에서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교육, 일, 여가에 있어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된다(Riley & Riley, 2000, p.267).

연령통합적인 사회에서는 연령 간의 불균형한 분배가 재분배되고, 이를 통해 연령간의 차별을 낮추고 공동체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Uhlenberg, 2000, p.276). 예를 들어 노인과 관련된 기금형성이 가족, 고령자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등의 다른 연령간의 재분배를 돕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Foner, 2000, p.274), 무엇보다 노인 외에 전체연령을 통합하는 정책은 보다 공동체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기술, 정보접근 방법 등의 사회변화로 노인 문제해결을 위해

젊은이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하는 연령통합적 개념의 사회는 매우 필요한 개념이 되었다(Zelenev, 2006, p.2). 또한 보다 유의미한 연령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 제품, 서비스, 정책,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Lengrand, 2009, p.14).

그러나 아직까지 연령통합의 연구는 대부분 연령통합의 사회의 개념과 연령통합이 되면 사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에 대한 논의 등 담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정경희, 2004, pp.21-22; 정순돌, 기지혜, 최혜지, 2015, pp.179-182; Riley, 1998, p.20; Foner, 2000, p.275; Uhlenberg, 2000, p.279). 최근 연령통합의 전문가 및 사회 일반인과의 비교연구(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돌, 2015, pp.121-122), 연령통합의 국가 간 비교연구(최혜지, 전혜상, 정순돌, 2015, pp.359-360)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령통합의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한편 정순돌 등(2015a, pp.389-397)에서는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연령통합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찾고, 연령통합의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연령통합의 사회를 구상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고,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한 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연령별로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양한 세대의 연령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연령통합 개념 및 관련 연구

연령통합(age integration)이란 연령으로 인한 장벽이 없어지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하는 상태를 말한다(김경호, 2005, p.559). 기존의 연령장벽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청년이 되는 나이를 규정하여 노인이 더 이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거나 일부 정규교육과정에서 연령별 제한을 두어 일정 연령이 넘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어 왔다. 그러나 연령통합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비록 개인과 사회에 따라 연령의 통합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 내에서의 구조적인 기회는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상태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Uhlenberg, 2000, p.262). 젊은 사람들은 교육을, 중년층은 직업 활동을, 노년기에는 여가 활동으로 구분되는 본질적 특성을 벗어나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교육, 직업, 여가 등에 연령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iley, 1998, p.4).

이러한 연령통합의 개념은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Riley & Riley, 2000, p.267). ‘연령유연성’은 사회 구조에 의해 나이와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연령에 의해 특정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 집단들 간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져 연령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역동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연령의 장벽이 제거된 연령유연적인 사회에서 노인은 여가 외에도 교육과 일 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노후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발생된다(Uhlenberg, 2000, p.262). 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노인이 되어도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의 캠퍼스에 머리가 하얗게 변한 중년층이나 노년층이 대학생으로 수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연령의 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손자녀 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함께 교류하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손자녀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줄 수 있고, 반대로 조부모 세대가 손자녀 세대를 양육하면서 예절이나 사회성 등을 가르치는 등 세대 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요양원의 노인들이 유치원생을 가르치거나, 대학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침에 따라 기존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세대 간에 전이가 되는 것의 예로 들 수 있다(Riley, 1998, p.9). 이러한 연령의 유연성은 중고령자의 직업과 사회참여를 증가시키고, 연령의 다양성은 다양한 연령간의 경험의 공유를 증가시키고,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령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통합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정순돌 등, 2015b, pp.162-163 ; Riley & Riley, 2000, p.266; Uhlenberg, 2000, p.261), 연령의 변화와 연령갈등에 대한 연구(Foner, 2000, p.272), 연령통합적 정책과 서비스 마련의 필요성과 관련된 제안 연구(Hudson, 1999, p.155; Baltes & Smith, 2003, p.123), 노인복지관련 법과 정책에서의 연령 기준을 통한 연령통합에 대한 함의와 관련된 연구(김경호, 2005, pp.553-554) 등 연령통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적인 연구가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연령통합과 관련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연령통합에 대한 척도개발(정순돌 등, 2015a, p.380)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일반인과 노인관련 전문가 집단 간의 연령통합과 연령통합이 미치는 개인과 사회변화에 대한 비교연구(최혜지 등, 2015a, p.107), OECD 33개 국가의 객관적, 주관적 연령통합의 수준을 측정하여, 연령통합과 노인의 삶의 질 등에서 국가의 위치에 대한 분석연구(최혜지 등, 2015b, p.343) 등 연령통합에 대한 연구가 담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측정과 비교분석 등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정도나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성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연령통합 사회의 잠재적 수혜자는 모든 연령층이고(김경호, 2005, p.25), 다양한 연령 간의 교류와 연령 간의 갈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연령의 연령통합사회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Foner, 2000).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고와 영향요인의 파악을 통해 연령별로 구체적인 인식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정도를 연령집단에 따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살펴본다.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과 연령통합의 관계

개인의 인식은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Bronfenbrenner & Bronfenbrenner, 2009, pp.3-8; Miely et al., 2012, pp.45-48). 개인이 느끼는 연령통합의 수준을 보다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과 같이 개인과 환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Bronfenbrenner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구분방법은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개인, 가족, 사회 등의 체계에 따라 구분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연령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각 체계에 따라 살펴보면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교육, 사회참여, 근로(Riely, 1998, pp.9-11), 차별경험(Uhlenberg, 2000, p.262)과 같은 요인, 중간체계 차원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요인(Foner, 2000, p.274),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와 관련된 지역사회접근성, 지역사회환경, 연령다양프로그램 등(Ravanera & Fernando, 2003, p.6)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나이에 의한 차별경험', '사회참여',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족주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경험'은 연령차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나 노동지위에서 차별받거나 가족관계 내에서 소외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차별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우국희 등, 2012; 천희란 등, 2013; Uhlenberg, 2000, p.262). 나이로 인한 차별의 경험은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나타날 수 있다. 고용시장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상으로 인해 중년세대 보다 대학생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는 40대 여성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Baars, 2000, p.302).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은 청소년과 노인의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자살사고 등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배진희, 2006, p.141; 권중돈 등, 2010, p.81; 송인한 등, 2011, pp.212-213), 중년층이나 노년층에는 노년의 불안감으로 연계되기도 하는 등(신학진, 2012, p.359)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나이로 인한 차별은 배제와 연관되어 세대통합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주현, 2009, p.361; Vitman, Iecovich & Alfas, 2014, p.178), 연령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적 차원의 두 번째 변수인 '사회참여'는 여가, 문화, 정치, 종교, 자원봉사, 경제 등 여러 영역에 대한 개인의 참여로 노인세대 뿐 아니라 중년, 청년층들도 다양한 연령 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대 간 이해증진은 물론 연령통합과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Aday, Slims & Evnas, 1991, pp.381-382). 사회참여는 사회적으로 참여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한 요인으로 분류될 경우 사회적 차원에서 언급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수준을 나타내므로 사회참여를 개인차원으로 구분하는 연구(김명일 등, 2013, pp.338-339)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조직 내 다양한 연령대의 비친족 간의 상호교류가 증가되며, 연령분절적 관계에서 연령통합적인 교류관계로 변화하게 한다 (Uhlenberg & Gierveld, 2004, p.5). 노인이 갖고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활동의 경우 젊은이와의 활동을 촉진시키며(Riley, 1998, p.13), 정치참여를 하는 것은 연령의 계급 간에 상호교환을 증가시킨다(Uhlenberg, 2000, p.264). 노인은 사회참여를 통해 기존에 좁은 활동범위를 넓히게 되고, 적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받는다 (Lengrand, 2009, p.20).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는 노인에게 있어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보내는데 중요한 것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는 실제 노인에게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고(민주홍, 2013, p.115), 생활만족도의 증진과 고독감을 감소시켜주는 등 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하다(권현수, 2009, p.995; 이갑숙, 임왕규, 2012, p.291; Cannucio, Block & Kawachi, 2003, p.395). 이러한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세대에게만 연령통합적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며, 다른 연령의 아동이나 청소년은 노인과의 상호작용의 증가를 통해 사회화의 경험을 가지게 되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기도 한다(정경희, 2004, pp.13-14).

한편 가족차원에서의 변수 역시 연령통합과 중요한 연관성을 지닌다. 가족은 전통적으로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족 내의 형성된 문화는 사회문화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세대 간 공존과 교환은 사회통합과 연결되며(정현숙, 2013, pp.17-20), 가족 내에서의 세대교류는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유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이금룡, 2004, pp.158-160; 이신숙, 2007, p.479). 젊은 성인의 경우 생애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 여부는 연령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Uhlenberg & Gierveld, 2004, pp.22-23). 특히 가족 내에서의 자신을

가족 내에서 일원임을 느끼고, 개인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협력하여 해결하는 점은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게 하며(윤홍식, 2012, p.264), 궁극적으로 연령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Foner, 2000, p.275). 이러한 점으로 인해 연령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중심으로 연령통합을 전개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avanera & Fernando, 2003, p.9). 특히 연령차별적 구조로 인해 특정 연령의 기회와 자원을 박탈하는 사회에서는 연령차별의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연령 갈등의 완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Attias-Donfut, 2000; 정경희, 2004 재인용, p.16). 또한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지와 지원은 세대를 초월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연령통합적인 삶으로 이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iley, 1998, pp.10-11). 한편, 가족주의는 이러한 가족내 구성원간의 상호 지지와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강조한다.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가족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응집력은 강해지며, 이는 곧 가족 내 다양한 연령간의 교류와 관계성을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Foner, 2000, pp.274-275). 즉,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가족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족주의를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차원에서 변수 역시 연령통합의 인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나 커뮤니티가 많을수록 지역 내에서의 활동은 증가하게 하며, 소속감과 연대감의 증가로 이어져 연령통합에 도움이 된다(Ravanera & Fernando, 2003, p.6). 특히 많은 지역 내 많은 네트워크 들은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등의 장을 마련해주어 세대 간의 통합의 기회를 제공한다(Lengrandr, 2009, pp.20-25). 그러나 각종 프로그램이 노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활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accessability)이 중요한데, 이는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먼 거리에 있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한경혜, 2002, p.81). 이에 노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교통이나 서비스의 접근성이 고령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김선자, 2010, p.1), 단순히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에도 도움이 되어 모든 연령의 주민이 걱정 없이 외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의 제공이 필요하다(정순돌, 어윤경, 2012, p.915). 이러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환경은 도시 거주노인의 경우 주민참여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

으며(정순돌 등, 2015c, p.29), 모든 연령이 통합되도록 돕는 거주환경은 영양원과 같은 연령분절적인 거주환경에 비해 사회교류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다양성의 기회를 자주 접하게 하여 연령통합에 도움이 된다(Cohen, Bearison & Muller, 1987, p.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차원에서 각각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과 사회참여, 가족주의, 지역사회접근성 등 연령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2014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7개의 광역시와 8개의 도 등 총 15개의 지역을 기반으로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원들은 사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사에 투입되었으며, 면접은 1:1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성별은 남녀 각각 500명씩, 연령은 20-44세 청년층은 300명, 45-64세 중년층은 300명,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400명이 표집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조사한 1,000명의 대상자의 자료가 모두 사용되었다. 연령을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65세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45세는 고령화연구패널에서 중고령자를 구분한 연령기준에 근거하여 구분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순돌 등(2015a, pp.393-397)에 개발된 연령통합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 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 무관한 사회 참여기회, 가족 내의 세대교류, 고령친화인프라 등 5가지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는 총 8개의 문항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있다.' 등 세대 간에 교류의 정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마련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 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나리와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젊은이와 노인이 공평하게 국가로부터 소득보장을 제공 받는다' 등 연령과 무관하게 고용참여와 국가제도를 제공받는 수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 무관한 사회참여기회는 총 4개의 문항으로 '노년기에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대학들은 중년층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수업을 제공한다' 등 연령과 무관하게 정치, 봉사활동, 교육 등에 참여의 가능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내 세대교류는 '조부모, 자녀, 손자녀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낸다.', '노인은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되지 않는다' 등의 가족 내에서 시간, 자원, 정서의 교류수준을 묻는 질문으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친화인프라는 '노인들의 거주공간이 젊은 세대들과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노인이 살기 편하도록 개조된 주택들이 많이 지어진다.'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통합척도는 총 28개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통합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연령통합 측정도구는 45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인 20세 이상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통해 추정된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GFI값과 증분적합지수 CFI값이 .90 이상이면 우수하고, RMSEA가 .06 이하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선행연구(Hu & Bentler, 1999, pp.50-52; Sun, 2005, p.249)에 근거하여 판정하였다. 분석결과 $\chi^2=1479.980$ ($p=.000$), $df=340$, $GFI=0.90$, $CFI=.090$, $RMSEA=0.06$ 로 수용할만한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척도는 20세 이상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령통합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911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1)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은 조사대상자가 ‘지난 1년간 나이의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0으로 응답하고,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1년 동안 차별경험을 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대한 범위는 ‘전혀 없음(0점)’부터 ‘매우 자주(10점)’까지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나이로 인한 차별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개인의 사회활동참여수준

개인의 사회참여활동수준은 경제, 자원봉사, 종교, 문화, 여가, 정치의 영역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여부는 예(1)/아니오(0)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참여의 수준을 알고자 6개 문항을 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사회참여활동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가족주의

가족 내 다양한 연령집단간의 교류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Bardis(1959, p.341)의 가족주의(familism) 척도를 활용해 측정하였다. 가족주의척도의 문항내용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의 가족에게 충실해야 한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자녀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도와야한다.’ 등 개인이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자세, 책임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가족주의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생각과 책임성 정도가 높아 다양한 연령집단 간 교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척도의 Cronbach α 는 .74이다.

4) 지역사회접근성

지역사회접근성은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WHO, 2007)의 항목을 활용 및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고령자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지역사회의

각종행사 및 이벤트가 노년층이 참여하기 편리한 시간대에 열린다.', '노년층을 위한 각종 행사의 정보가 적절히 제공된다.'등의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사회의 행사와 이벤트의 장소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참여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행사가 열린다' 와 같이 지역사회에 누구나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용이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고령자의 지역사회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Cronbach α 는 .83이다.

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연령(해당연령 기입), 지역(1=읍면동, 2=중소도시, 3=광역시), 성별(1=남, 0=여), 교육기간(기간입력), 월 평균수입(수입여부에 따라 1~6까지 입력)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3. 분석방법

연령별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SPSS 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령별 차이에 따른 연령통합을 알아보기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령별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징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연령별 빈도를 살펴보면 20-44세

는 300명이며 평균연령은 35세, 45-64세는 총 300명이며 평균연령은 52세,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빈도는 400명이며 평균연령은 69세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지역은 광역시의 분포가 높았으며, 중소도시, 읍면도시로 나타났다. 연령은 남성, 여성의 분포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교육기간은 평균 11.95년이며, 전체에서 73.5%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한 연령별 차이는 20-44세가 14.31년, 45-64세가 13.12년, 65세 이상인 9.32년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전체의 60.7%가 월 399만원 이하의 소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n=1,000)

	20-44세 빈도(%)	45-64세 빈도(%)	65세 이상 빈도(%)	전체(%)	
연령(빈도, 평균)	300(35)	300(52)	400(69)	1,000(평균 53)	
지역	광역시	143(47.7)	140(46.7)	197(49.3)	480(48)
	중소도시	115(38.3)	104(34.7)	151(37.8)	370(37)
	읍면지역	42(14.0)	56(18.7)	52(13.0)	150(15)
성별	여성	150(50.0)	157(52.3)	193(48.3)	500(50)
	남성	150(50.0)	143(47.7)	207(51.8)	500(50)
교육 기간	무학	0	0	9(2.3)	9(0.9)
	초등재학	3(1.0)	0	21(5.3)	24(2.4)
	초등졸업	0	7(2.3)	88(22.0)	95(9.5)
	중등졸업	3(1.0)	24(8.0)	124(31.0)	151(15.1)
	고등졸업	73(24.3)	142(47.3)	133(33.3)	348(34.8)
	대학교 이상	221(73.7)	127(42.3)	25(6.3)	373(37.7)
	평균(년)	14.31	13.12	9.32	11.95
월 평균	0-199만원	23(7.7)	25(8.3)	193(48.3)	241(24.1)
	200-399만원	126(42.0)	88(29.3)	152(38.0)	366(36.6)
	400-599만원	111(37.0)	139(46.3)	47(11.8)	297(29.7)
	600-799만원	31(10.3)	39(13.0)	7(1.8)	77(7.7)
	800-999만원	5(1.7)	8(2.7)	1(.3)	14(1.4)
	1000만원 이상	4(1.3)	1(.3)	0	5(0.5)

2. 연령집단별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비교

연령집단에 따른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은 <표 2>와 같이 나타났으며, 연령집단간 점수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803, p<.001$). 20-44세의 연령 통합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는 3.0124, 45-64세는 2.9332, 65세 이상의 경우 2.880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를 통해서도 65세 이상의 집단이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수준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20-44세의 집단이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스스로가 노인에 대해 더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남석인, 2008, p.1309; 이선자, 1989, p.28; 정영숙, 김인주, 2007, p.171; 홍현방, 2009, p.327; Cohen, Bearison & Muller, 1987, p.79)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연령분절적 사회환경에 처해 차별적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연령통합에 대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령집단별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수준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	Scheffe
a.20-44세	300	3.0124	.48456	.02798	6.803***	c < b < a
b.45-64세	300	2.9332	.46997	.02713		
c.65세 이상	400	2.8801	.45831	.02292		
전체	1,000	2.9357	.47252	.01494		

*** $p<.001$

3. 연령별 개인, 가족, 사회차원에서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위해 투입된 독립변수의 상관계수는 모두 .8 이하였으며, VIF는 10 이하, 공차한계는 1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모델 1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모델 2에서는 개인수준의 변수로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과 개인의 사회활동 참여수준을, 가족과 관련된 변수로는 가족주의를, 지역과 관련된 변수로는 지역사회

접근성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델의 유의성은 모델의 적합도와 설명력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델 1은 20-44세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F=2.335, p<.05$), 모델의 설명력은 2%에 불과하였다. 모델 2의 경우 모델은 연령통합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20-44세, $F=5.693, p<0.001$; 45-64세, $F=11.195, p<0.001$; 65세 이상, $F=12.268, p<0.001$). 연령별로 나타난 모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20-44세의 경우 12%, 45-64세의 경우 23.5%, 65세 이상의 경우 20.3%로 나타났다.

세 연령집단 모두에게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주의와 지역사회접근성으로 나타났다. 세 연령집단 모두 가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지역사회접근성이 높을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은 연령통합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44세 청년층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연령($\beta=-.126, p<0.05$)과 지역($\beta=-.137, p<0.05$)변수만 유의미하였으며,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접근성($\beta=.259, p<0.001$), 가족주의($\beta=.210, p<0.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이 중심지가 아닐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났다.

45-64세 중년층의 경우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사회의 접근성($\beta=.436, p<0.001$)이었으며, 개인의 사회활동 참여수준($\beta=.159, p<0.01$), 월 평균수입($\beta=-.152, p<0.05$), 가족주의($\beta=.124, p<0.05$)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접근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사회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낮을수록,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64세 집단의 경우 다른 연령집단과 다르게 사회참여가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역사회 접근성($\beta=.349, p<0.001$), 가족주의($\beta=.178, p<0.001$), 교육받은 기간($\beta=-.111, p<0.05$)등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교육받은 기간이 짧을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별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1			모델2						
	20-44세			45-64세			65세이상			
	B	β		B	β		B	β		
Constant	3.082***		3.601***	3.838***	1.618***		1.474**		1.840***	
인연령	-.008	-.124*	-.013	-.111	-.008	-.126*	-.007	-.067	-.008	-.080
구상별	-.047	-.049	-.027	-.028	.030	.033	-.012	-.006	-.006	.013
지역	-.075	-.110	-.032	-.053	-.004	-.006	-.093	-.137*	-.016	-.026
교육기간	.024	.112	.011	.058	-.019	-.142*	.021	.097	.008	.043
성	.024	.046	-.029	-.056	.004	.007	.001	.003	-.079	-.152*
독립변수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							-.006	-.027	-.009	-.045
개인의 사회활동 참여수준							-.011	-.023	.062	.159**
가족주의							.271	.210***	.164	.124*
지역사회 접근성							.242	.259***	.383	.436***
adjusted R ²	.022		.005	.007	.124		.235		.203	
F	2.336*		1.312	1.574	5.693***		11.195***		12.268***	

*p<0.05 **p<0.01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을 연령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수준은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통합인식에 있어 세 연령집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역사회접근성과 가족주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수준의 경우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과 우정 등의 개인의 상호이해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Cohen, Bearison & Muller, 1987, p.79). 또한 연구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인 스스로가 노년을 아름답게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남석인, 2008, p.1309; 이선자, 1989, p.28; 정영숙, 김인주, 2007, p.171; 홍현방, 2009, p.327; Cohen, Bearison & Muller, 1987, p.79), 사회적 환경이 노인에 대한 차별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연령통합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높이고 연령통합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개선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들 스스로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멀어지거나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도록 인식개선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노인과 미래에 노인이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노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디어 등을 통해 노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노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교육, 근로 등에 있어서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연령제한 규정 등이 철폐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을 사회로부터 배제시켜 노인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차단하게 할 것이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들을 연령별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모든 연령이 접근 가능한 지역적인 환경구성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만성적 질환이나 스트레스, 정보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내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이러한 점은 다른 연령과의 통합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Baltes & Smith, 2003, p.133).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모든 연령대가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을 접근함에 있어 정보, 거리, 비용, 장소 등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와 관련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행사나 각종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습득이 빠른 청소년, 성인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이메일과 같은 웹기반의 홍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고, 노인이나 아동의 경우에는 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지를 작성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참여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장소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Lengrand, 2009, pp.14-15). 이와 같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접근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연령을 위한 노력(Hudson, 1999, p.155)이며, 다양한 연령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연령간의 교류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연령의 다양성인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이용 시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의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등을 개방하여 젊은 세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필요한데, 가족이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정현숙, 2013, pp.17-20; Riley, 1998, pp.10-11; Foner, 2000, pp.274-275; Ravanera & Fernando, 2003, p.9; Uhlenberg & Gierveld, 2004, pp.22-23). 이는 가족주의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모두 공동체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가족주의는 가족에 대한 충실성, 가족에 대한 문제해결 및 책임성 등 가족에 대한 공동체적인 인식을 의미하며, 연령통합의 인식은 연령 간에 공동의 문제해결, 공동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모습 등 사회 내에서의 공동체성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을 통한 연령통합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 세대 간의 공동체성, 가족가치관 등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내에서의 세대 간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내에서 여러 세대가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가족은 핵가족화 되고, 가족해체가 일어나는 등 가족 간에 교류와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가족 내에서 다양한 연령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가족의 날'과 같은 정책적인 캠페인의 경우에도 핵가족 범위 내에서의 가족관계증진의 방법을 제안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가족 범위에서의 가족 간의 관계증진과 교류증진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세대교류의 날'을 만들어서 기존에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손자와 조부모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방법(손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IT기술 전수,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인생경험 및 전통놀이 나누기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관련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대화증진 프로그램,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간 세대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차원에서는 연령통합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참여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45-64세 집단에서만 나타난 결과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세대의 경우 한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인데,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이 연령통합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김효선, 윤소영, 2011, p.99). 이들 연령집단이 지속적으로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자원봉사, 종교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정치활동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와 관련하여서도 준고령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한 봉사활동의 내용에서, 기존에 본인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 봉사활동은 연령별로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돕고 연령통합적인 인식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종교, 문화, 여가 등에서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고령자의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령통합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령교류의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종교, 문화, 여가 등의 사회참여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시간대

에 한 연령층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세대 간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교류를 통해 기존의 삶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대 간 이해와 연령통합적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연령통합인식에 대한 변화를 한 시점에서만 살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단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어떠한 사회적 제도가 연령통합인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향후 연구에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연령차별에 대한 경험은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령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담론에 머무르거나, 연령통합적 사회를 통한 사회변화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에 반해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실제 연령별로 어떠한 수준인지, 그리고 연령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령통합인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정순들은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 노인가족, 노후준비, 사례관리이며, 현재 연령통합, 고령사회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dchung@ewha.ac.kr)

정세미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가족과 지역사회, 돌봄 등이며, 현재 고령화 사회의 연령통합, 가족의 돌봄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vlsemi@hanmail.net)

이미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학대, 조사방법론 등이며, 현재 health literacy, 노인 정신건강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mousedumo@naver.com)

임정숙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정신 보건, 장애인, 중독 등이며, 현재 노화 인식, 노인정신건강, 고령화 사회의 연령통합, 장애인 복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runar526@naver.com)

참고문헌

- 권중돈, 송의성. (2010).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pp.81-106.
- 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pp.995-1008.
- 김경호. (2005).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고찰한 노인복지 관련 실정법상 연령기준의 정책적 함의. *법과 정책연구*, 5(1), pp.553-582.
- 김명일, 이상우, 김혜진. (2013). 서울시 거주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연구. *보건사회연구*, 33(3), pp.327-360.
- 김선자. (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정책리포트*, 64, pp.1-20.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 pp.361-391.
- 김호식, 정미녀, 손경숙. (2005).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 간 해결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1), pp.73-93.
- 김효선, 윤소영. (2011). 연령통합적 여가 측면에서 본 자원봉사활동의 연령별 실태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pp.85-101.
- 남석인. (2008). 남성노인의 차별경험이 노인인식 및 노년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족기능과 동년배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8(4), pp.1297-1315.
- 민주홍. (2013).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가 주관적 건강 및 건강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33(4), pp.105-123.
- 배진희. (2006). 노인의 차별경험과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 pp.141-161.
-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pp.199-223.
- 신학진. (2012). 한국중년의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집단간 불안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2), pp.359-376.
- 양정선. (2007).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과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pp.1-13.

- 우국희, 주경희, 이연순. (2012). 취업노인의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 39(4), pp.281-304.
- 윤홍식. (2012). 가족주의와 가족정책 재유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64(4), pp.261-284.
- 이갑숙, 임왕규. (2012).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pp.291-306.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 모색. *노인복지연구*, 26, pp.143-164.
- 이선자. (1998). *연령 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신숙. (2007).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pp.479-490.
-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5(1), pp.11-26.
- 정순돌, 기지혜, 이은진, 최혜지. (2015a).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pp.380-404.
- 정순돌, 기지혜, 최혜지. (2015b).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인식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8, pp.161-186.
- 정순돌, 전해상, 송아영. (2015c). 노인이 인식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정도가 노인의 심리 사회적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3), pp.29-46.
- 정순돌, 어윤경. (2012). WHO 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2(3), pp.913-926.
- 정영숙, 김인주. (2007). 아동, 청소년 및 노인이 지각한 노인 특성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2), pp.171-184.
- 정현숙. (2013). 가족의 세대 간 통합과 사회통합. *한국가정관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가정관리학회. pp.13-41.
- 천희란, 김일호. (2013). 노인차별의 사회경제적 관련요인과 건강영향. *한국노년학*, 33(3), pp.601-615.
- 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돌. (2015a). 고령사회 대안 패러다임으로써 연령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과 전문가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3), pp.107-112.

- 최혜지, 전혜상, 정순돌. (2015b). OECD 국가비교를 통해 본 노인 연령통합의 좌표와 유용성. *사회복지정책*, 42(2), pp.343-364.
- 통계청. (2015.9.24.). 2015년 고령자 통계.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8565에서 2015.12.23. 인출.
- 한경혜. (2002). 미국의 농촌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지원프로그램.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13(2), pp.77-86.
- 홍현방. (2009).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이미지 탐색연구. *노인복지연구*, 44, pp.327-344.
- Aday, R. H., Sims, C. R., & Evans, E. (1991).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partn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3), pp.372-384.
- Baltes, P. B., & Smith, J. (2003). New frontiers in the future of aging: From successful aging of the young old to the dilemmas of the fourth age. *Gerontology*, 49(2), pp.123-135.
- Bardis, P. D. (1959). A familism scale. *Marriage and Family Living*, 21, pp.340-341.
- Baars, J. (2000). Conflicting trends in the Netherlands. *The Gerontologist*, 40(3), pp.302-304.
- Bronfenbrenner, U., & Bronfenbrenner, U. (200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annuscio, C., Block, J., & Kawachi, I. (2003).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aging: The role of senior hous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9(5_Part_2), pp.395-399.
- Cohen, F., Bearison, D. J., & Muller, C. (1987). Interpersonal Understanding in the Elderly The Influence of Age-Integrated and Age-Segregated Housing, *Research on Aging*, 9(1), pp.79-100.
- Foner, A. (2000). Age integration or age conflict as society ages?. *The Gerontologist*, 40(3), pp.272-27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pp.1-55.
- Hudson, R. B. (1999). The role of government in 'A Society for All Ages'. *Health & social work*, 24(2), pp.155-160.
- Lengrand, L. (2009). *Innovation in an Age-Integrated Society: mini study 07*, INNO GRIPS. http://www.exercicescorriges.com/i_253253.pdf.
- Miley, K. K., O'Melia, M. W., & DuBois, B. L. (2012).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An Empowering Approach*. 7th edition. Boston: Pearson Allyn and Bacon.
- Ravanera, Z. R., & Fernando, R. (2003). Integration at Mid-Life: An Analysis of the General Social Surveys on Time, Use. *PSC Discussion Papers Series*, 17(9), pp.2-19.
- Riley, M. W. (1998). *The hidden age revolution: Emergent integration of all ages*. NY: Syracuse University.
-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pp.266-270.
- Sun, J. (2005). Assessing goodness of fit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4), pp.240-246.
- Uhlenb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pp.261-266.
- Uhlenberg, P., & de Jong Gierveld, J. (2004). Age-segregation in later life: An examination of personal networks. *Ageing and Society*, 24(1), pp.5-28.
- Vitman, A., Iecovich, E., & Alfasi, N. (2014). Ageism and Social Integration of Older Adults in Their Neighborhoods in Israel. *The Gerontologist*, 54(2), pp.177-189.
- Zelenev, S. (2006). 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 meeting the challenge or missing the boat.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8(190), pp.601-616.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and Variables Influencing on Age Integration: Comparison among Age Groups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ersity)

Lee, Miwoo

(Ewha Womans University)

Chung, Semi

(Ewha Womans University)

Lim, Jungsuk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and to find out variables affecting age integration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We us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1,000 adults who are aged 20 and over.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varied across age groups, 2)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3) community accessibility and familism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xplain age integration, 4) social participat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for explain age integration only in the 45-64 age group. Howev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due to age were not related to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Suggestions for age integration and constructions for age integrated society have been proposed.

Keywords: Age Integration, Major Variables Influencing on Age Integration, Accessibility of Community, Familism, Social Participation